

경북도, 농식품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공모 선정

상주 낙동면 일원 2028년까지 총 200억 원 투입

경상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사업에 상주시가 최종 선정돼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경상북도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모두 갖춘 전국 유일의 지역이 됐다. 이를 통해 농업인 교육→실증→생산→정착으로 이어지는 스마트농업 전 주기 인프라를 완성했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는 청년농의 안정적인 스마트농업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생산·연계·가공 등 관련 산업을 집적화한 첨단 농업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해당 지구에는 시설건

립 인허가 간소화, 공유재산법 특례 적용(수의계약, 20년 장기 임대, 연구시설 축조) 등 파격적인 행정·재정적 특례가 적용된다.

이번에 선정된 상주시는 낙동면 신상리 일원에 2028년까지 총 200억 원을 투입해 초기자본이

부족한 청년농에게 최대 10년간 임대 가능한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한다. 또한 청년농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팜 창업단지도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

리에서 매년 배출되는 50여 명의 수료생이 임대형 스마트팜을 거쳐 창업단지로 안착하는 청년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경상북도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북부권(안동·예천·봉화), ▲남부권(영천·성주), ▲중·동부권(경주·구미), ▲서부권(상주·김천) 등 권역별 스마트팜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도 전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선정은 경북 농업 대전환을 위한 스마트농업 시스템을 완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스마트농업을 희망하는 우수한 청년들이 경북에서 농업을 시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영란 기자
yungran528@hanmail.net



▲경북도, 농식품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공모 선정

곡성군, 고품질 블루베리 장기 출하산지로 우뚝

장기 출하체계 구축으로 시장 경쟁력 선점

전남 곡성군이 고품질 블루베리 안정 생산 체계를 구축하며, 고품질 산지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동시에 청년 농업인과 귀농인의 유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

통치의 신뢰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생산량보다는 품질이 우수한 권장품종 재배와 공선출하를 통한 계획생산으로 산지 경쟁력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있다.

3월~9월 장기 출하 시스템으로 농가 소득 극대화

곡성군은 시설하우스 가운데 배부터 간비비기림, 노지재배를 거쳐 만생종 생산으로 이어지는 3월부터 9월까지 장기 출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조기재배를 통해 3월에 출하되는 블루베리는 시장 선점 효과로 높은 가격 형성을 통해 농가 경영 안정과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부터 7~9월 만생종 단지를 육성해 연중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가능한 체계를 갖춰 유

청년 농업인 급증 '돈 되는 작목'으로 인식 확산

안정적인 소득이 가능한 곡성 블루베리는 청년층에게 매력적인 작목으로 부상했다. 실제 역대 매출 농가가 늘어나며 신규 진입 농가의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실제로 2023년~2025년 만49세 이하 청년 농업인 신청자가 5명이었으나, 2026년에는 11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신규 농업인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군에서는 현장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기반 구축을 위한 관련

예산을 늘려 대응하고 있다. 곡성군은 농가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설하우스, 난방기 관리시스템 등 장기 출하에 필요한 핵심 시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공선출하체계 구축으로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곡성군 기술보급과장은 "곡성군은 3월 조기재배에 강점을 지닌 기존 생산 기반에 더해 7~9월에 생산되는 만생종 블루베리 단지를 함께 육성해 출하 공백을 최소화하고, 고품질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장기 출하산지로의 정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기재배와 계획생산을 통해 품질을 균일화한 것이 고소득의 핵심 요인인 만큼, 교육과 지원을 병행해 청년과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곡성군블루베리관선회 오성종 회장은 "군에서는 농가 수요 맞춰 교육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곡성농협에서는 안정적인 판로 개척으로 농업인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어 곡성 블루베리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더 좋은 상품이 출하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의지를 다졌다. 곡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2031년까지 출하량 525톤, 생산액 140억 원 규모의 산지를 조성해 농업이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영덕 기자
press582@nonguplimes.com



▲곡성에서 블루베리농가에 중사하는 청년 농업인들

고양시, 농업인 대표 단체 간담회 개최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방안 논의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5일 시청 열린시장실에서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고양시연합회(이하 한농연) 임원진과 농업 현안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가 경영비 상승과 기후 변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농업의 파수

꾼 역할을 하고 있는 후계농업 경영인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심도 있게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농연 임원진은 고양시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3가지 핵심 안건을 건의했다. 먼저, 기후 이변으로 인한 육묘 실패 등 농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예비농자리 사업'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는 안정적인 쌀 생산 기반을 구축해 농가의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어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인 '김장나눔행사'의 사업 확장 방안이 논의됐다. 한농연 측은 소외계층 지원과 우리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행사 규모 확대를 제안했다.

특히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된 일산열무의 브랜드 인지도를 확산시키고,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다각적인 마케팅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제안해주시는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일산열무가 고양시를 대표하는 간판 특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지"고 화답했다.

정영란 기자
yungran528@hanmail.net

안성시, 축산환경 개선 위해 왕겨 구입 지원사업 추진

오리·육계농가 왕겨 구입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조성

안성시는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오리·육계농가 왕겨 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월 2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리·육계 농가와 평사 사육 방식의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깔짚용 왕겨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원 단가는 톤당 최대 8만 원이다.

축산 농가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왕겨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쾌적한

사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왕겨는 축산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가스과 악취를 흡수·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주요 자재로, 가축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특히 오리와 육계 농가의 경우 왕겨 사용 비중이 높아,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경우 악취 저감과 위생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성시는 이번 왕겨 구입비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축산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을 줄이고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축산환경을



▲안성시제공

조성에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실효성 있는 축산환경 개선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혜인 축산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시민 생활환경 개선에도 기여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과 현장 중심의 지원을 통해 축산 악취를 줄이고, 시민과 농업인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안성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진아 기자
midal0210@naver.com

경주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폐비닐·농약용기류 등 집중 수거

경주시는 농촌지역 환경보전과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2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농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수거·처리함으로써 농촌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우선 재활용이 가능한 영농폐

기물을 대상으로 집중 수거를 실시한다. 수거 대상은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이며, 해당 기간 동안 마을별 영농집하장에 배출하면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와 처리를 맡는다.

이와 함께 그동안 처리에 어려움이 컸던 영농폐기물에 대해서도 별도 수거를 지원한다.

차광막, 부직포, 반사필름, 모종판 등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는 영농폐기물을 대상으로 3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무상 수거·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배출일자과 장소 등 세부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순우경 경주시 지원순환과장은 "영농폐기물의 무단 방치와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환경 조성에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진아 기자
midal0210@naver.com

손쉽게 만나는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가락시장을 한눈에!

우리가족 건강밥상에 올라오는 안전한 농산물 이야기 -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가락시장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www.garak.co.kr

SAFFC_OFFICIAL